

선운산 사계절 휴양명소 거듭난다

생태숲 정비·노후 시설물 보수 등산로 정비 등 20억 예산 확보

고창군의 대표적 산림휴양지인 선운산도립공원이 사계절 휴양명소로 발돋움한다.

고창군은 선운산도립공원을 사계절 즐길 수 있는 휴양명소로 조성하는 대대적인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생태숲 정비와 노후 시설물 보수, 등산로 위험 구간 정비 등 이용자 중심의 정비가 이뤄질 예정이다. 군은 올해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군의 정비사업 중에서는 선운산 초입 '생태숲'의 대변화가 주목된다.

생태숲은 선운산에 자생하는 고유 수종보호와 생태계 보전 및 자연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환경 교육장이다.

군은 생태숲의 가치를 보전하고자 7억원을 투입해 야생화 추가 식재와 방문자센터 시설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선운산을 대표하는 산뜻한 공간으로 만들 예정이다.

이어 선운산도립공원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군은 사업이 완료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고창군이 선운산도립공원을 사계절 즐길 수 있는 휴양명소로 조성하는 대대적인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선운사 설경. <고창군 제공>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지속적인 관리와 발전 계획을 통해 선운산도립공원의 매력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정비 사업을 통해 선운산도립공원이 봄에는 꽃, 여름에는 푸른 숲, 가을에는 단

풍, 겨울에는 설경을 즐길 수 있는 사계절 휴양명소로 거듭날 것"이라며 "방문객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고창군,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불법소각 단속·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 등

고창군이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높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개월간을 관리기간으로 지정해 평소보다 강력한 저감대책을 실시함으로써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관리대책이다.

군은 이 기간 자동차 배출가스(공회전) 관리,

불법소각 단속,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 대기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 등을 대상으로 대기질 오염원 발생을 관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대기질 점검, 농촌지역의 영농폐기물과 잔재물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집중 수거 및 감시단을 운영한다.

또 계절관리제 운영상황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의 행동 요령, 비상저감조치 이행현황 등을 주민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고창군 내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시에는 1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고미숙 고창군 환경위생과 과장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군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꼭 가 봐야 할 '남원 최고 맛집' 5곳

두달간 공모전...그랑개·집밥담다 등 '남원미식' 선정

남원의 최고 맛집 5곳이 가려졌다.

남원시는 지난해 11월부터 2달간 '남원의 맛(가칭) 공모전'을 추진해 그 결과로 ▲그랑개 ▲집밥담다 ▲두레식당 ▲명문제과 ▲정육추어탕 등 5개 업소를 남원의 대표 5대 맛집 '남원미식'에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남원의 맛' 사업은 기존의 일률적인 업소선정 방식에서 벗어나 남원의 맛을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국민참여형 브랜드 개발 차원에서 기획됐다.

남원미식은 사업 추진상의 세부공모를 통해 브랜드이미지로 선정했고 이를 각종 홍보물에 적용할 예정이다.

또 별도의 영상공모전을 통해서도 남원미식을 잘 표현한 우수영상을 뽑았고 이를 숏폼영상 제작, 남원tv 채널 업로드 등을 통해 남원의 맛으로 널리 알려 나갈 계획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선정된 5대 맛집을 우리 시를 대표하는 미식관광 홍보매체로 적극 활용할 계



획"이라며 "생활인구 유치 활성화 및 관광객유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정읍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보험금 확대

14개 항목→18개...농기계 사고 보험금 최대 1000만원

정읍시가 시민안전을 위해 가입·운영 중인 시민 안전보험을 확대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정읍시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이 기존 14개에서 18개로 늘었고 대중교통 상해사망과 사회재난 사망의 보장한도는 각각 2000만원, 농기계 사고 사망·후유장애는 최대 1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예상치 못한 재난과 안전사고를 당한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시는 지난 2020년부터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해 오고 있다.

올해 관련 예산을 추가 확보해 새로운 보장 항목을 추가하고 보장한도를 상향해 시민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기존 보장항목은 ▲상해 사망(교통상해 보장제외) ▲상해 후유장애(교통상해 보장제외)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애 ▲사회재난 사망 ▲농기계사고 사망 ▲농기계사고 후유장애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개인형 이동장치 탑승 중 상해사망 ▲개인

형 이동장치 탑승 중 상해후유장애 ▲급성감염병 사망 ▲급성감염병 후유장애 ▲스킵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삼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14개였다. 여기에 시는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후유장애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강력범죄 피해보상금 등 4개 항목을 추가했다.

정읍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보험기간 중 전입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고 발생 지역이나 타 보험과 상관없이 중복 보장도 가능하며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 시민의 사망은 보장되지 않는다.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사고 발생 후 보험사 통합상담센터에 문의한 뒤 청구서와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보험사는 청구 내용을 심사한 뒤 보험금을 지급한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남원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남원시가 '2025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본격 운영에 앞서 지난 10일 총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처리 지침과 안전 수칙 준수사항, 피해방지단 운영 방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남원시 제공>

오늘부터 24시간 긴급상황 대비

남원시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을 위해 2025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포획 대상은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조수로 피해 신고가 접수된 마을과, 그 주변 지역으로 피해방지단이 투입되어 유해야

생동물 포획에 나서게 된다. 또 긴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도 운영한다. 야간과 공휴일에 멧돼지로 인한 긴급상황 시 112 또는 119로 신고하면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이 출동해 수색 및 포획 활동을 전개한다.

총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처리 지침과 안전 수칙 준수사항, 피해방지단 운영 방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2025년 활동 준비를 마쳤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정읍 고교 졸업 청년 구직자에 100만원 지원금

정읍시가 올해 고교를 졸업한 청년 130명에게 1인당 100만원의 구직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고교 졸업 후 취업을 선택한 청년들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올해 고교를 졸업한 졸업생(검정고시 합격자 포함)으로, 본인이나 부모 중 1명 이상

이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정읍시에 거주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으며,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시는 신청자 편의를 위해 제출서류를 간소화했고, 주소지 요건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wilo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